

1. 트라키의 "Green Light". 유동성 장세 지속을 지지



- 4월 ECB 통화정책회의 기준 QE 프로그램의 충실한 이행을 다시 한 번 강조
- 일각에서는 유로존 경기지표 회복과 자산가격 상승을 배경으로 ECB QE의 조기종료 가능성을 제기했으나 이에 대한 가능성을 완전히 일축시킴
- 따라서 "부진한 미국 경기지표 + ECB 경기부양 정책의지 강화" 조합은 기존의 위험자산 선호를 강화시킬 것 국내증시로의 외국인 자금유입 기조 강화 전망

2. 달러화 약세 지속. 이머징 자산강세 + 국내자동차 산업종 수혜



- 달러인덱스 3거래일 연속 하락 중. ECB의 강한 정책부양의지는 통상적으로 유로화 약세 vs 달러화 강세 구도를 지지
- 하지만 금일 발표된 미국의 산업생산, 뉴욕제조업지수 등이 연이어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며 달러화 추가 약세 압력으로 작용
- 이는 두 가지 관점에서 국내증시에 긍정적
- 1. 달러화 약세는 전반적인 이머징 자산(환율 주식) 가격의 강세 압력으로 작용
- 2. 이머징 환율의 전반적인 상승압력으로 국내 자동차 업종 투자심리 회복에 기여

3. 유가 급등세 지속 중(WTI 일중). 정유업종 추가 강세를 지지



- 국제유가 5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누적상승률+12% 기록
- IEA, 미국의 주간 원유재고 증가세가 예상수준을 대폭 하회 (전주 대비 130만 배럴 증가 VS 예상수준 410만 배럴 증가)
- IEA, 올해 원유수요 전망치 일평균 9,360만 배럴로 상향조정 (기준대비 9만배럴 상향 조정)
- 최근 달러화 약세 흐름 역시 유가상승 강도를 강화
- 이는 유가상승에 민감한 국내 정유, 화학업종의 투자심리 개선에 일조할 것

4.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?

- "부진한 미국 경기지표 + ECB 경기부양 정책의지 강화" 조합은 기존의 위험자산 선호를 강화시킬 것 → 국내증시로의 외국인 자금유입 기조 강화 전망
- 외국인 주도의 대형주 강세 구도 지속 전망. 단기관점에서 달러화 약세 + 국제유가 강세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는 자동차와 정유업종에 관심
- 달러화 약세 + 유가상승 조합의 최대 수혜는 러시아. 최근 루블화 가치 급등 중 → 자동차업종 중에서 기아차, 현대위아를 수혜주로 추천
- 유가상승에 따른 재고마진 증가 폭 확대
→ 정유업종 중에서 S-OIL과 SK이노베이션을 수혜주로 추천
(당사 정유/화학 이충재, 자동차 김형민 연구위원의 투자 의견을 참조)

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 판단을 돕기 위해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. 본 자료는 조사분석 담당자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나, 제공되는 정보의 완전성이나 정확성을 당사가 보장하지 않습니다. 모든 투자의사결정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하시기 바라며,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어떠한 법적 분쟁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며,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배포, 복제, 인용, 변형할 수 없습니다.